

# 경제개혁이후 중국의 노동시장 역동성과 지역경제발전 : 지역격차변화 이해에 대한 함의

Labor Market Dynamics and 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in Post-Reform China:  
Implications for Understanding Changing Regional Inequality

이 원 호\*

요약

본 연구는 경제개혁이후 중국의 지역경제성장의 불균등성에 대해 진행된 많은 연구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시장화 전략에 의한 노동시장성장의 지리적 패턴과 그것이 갖는 지역격차 이해에 대한 함의를 검토한다. 변이할당 분석을 통해 나타난 고용성장의 지리학은 생산량에 기초한 공간경제패턴과 유사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시장화의 심화에 따라 노동시장의 성장이 노동수요의 변화에 대응하고 있다는 점을 반증하는 것이다. 또한 생산량과 생산성의 변화가 노동시장의 성장에 대해 갖는 효과를 관찰한 결과, 비국유기업의 생산량 및 생산성의 상대적 증가가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지역변이효과를 통해 지역경제내 고용증대효과를 동남해안지역의 성들 중심으로 가져 온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국유기업은 생산량과 생산성의 상대적인 감소로 인하여 고용감소효과를 가져 왔다. 결과적으로 노동시장의 성장은 생산의 증대와 함께 지역경제발전의 패턴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아울러 고용성장의 지리적 패턴에 대한 설명과 이해는 나아가 경제개혁이라는 제도적 변화와 관련시킨 연구를 통하여 보다 확대될 수 있다.

주요어 : 중국, 노동시장 역동성, 시장화, 불균등발전, 변이할당분석

## 1. 머리말

1978년 경제개혁을 시작한 이후 중국의 경제는 매년 눈부신 성장을 이루어 왔다. 이는 과거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시장경제로의 이행과 후진국 경제개발을 위한 전략수립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면서 학계에 지대한 관심을 끌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급속한 경제개발이 지대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함께 수반하였다는 점은 이미 널리 주지된 사실이다. 그러한 비용으로는 정

치적 부패, 환경문제, 소득격차 및 지역격차의 확대 등을 포함한다. 특히 지역격차의 문제는 체제의 안정성과 경제개혁의 효율성 문제와 관련되어 지대한 관심을 끌어 왔다.

중국연구분야에 있어 지역불균등발전은 가장 많이 논의되고 있는 주제들 중에 하나이고 아직도 이를 둘러싼 논쟁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Fan, 1997; Ying, 1999; Fan and Wei, 2000). 지리학에서도 여타 사회과학분야와 같이 중국의 지역격차에 대한 지속적인 관

\* 건설교통부 국토건설종합계획심의회 전문위원

심을 보여 왔다. 지역격차를 둘러싼 의견차이는 한편으로는 각각의 연구에 이용된 자료나 분석대상의 시간적 범위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라 생각된다. 아울러 지역격차를 다룸에 있어 다양한 공간적 단위, 즉 지역간, 성간 및 성내의 불균등발전 패턴을 고찰하면서 각각 서로 다른 모습을 서술하고 있다. 그러나 제기되고 있는 다양한 주장들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연구들에 있어 공통적인 사실 하나는 그들이 모두 지역경제성장의 생산 측면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사실이다.<sup>1)</sup> 많은 연구들이 지역간의 성장격차를 다룰 때, 지역내 경제발전의 지표로서 지역내 총생산이나 공업총생산 등의 지표를 이용하고 있다. 하지만 지역경제의 성장정도는 단지 지역총생산의 수준뿐만 아니라 지역내 생산성의 변화와 노동력 동원의 잠재력에도 깊이 의존하고 있다. 즉 불균등의 지리적 패턴은 생산성과 노동시장의 공간적 패턴과 깊이 관련되어 있다. 이는 지역성장에 대한 개념화가 반드시 “노동시장의 구조와 조직 및 그것이 갖는 사회적 재생산체계와의 접합”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의미한다(Dunford, 1996: 339).

본 연구는 지역 불균등발전에 대한 이러한 인식에 기초하여 경제개혁이후 중국에서 나타난 지역격차의 패턴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경제개혁이후 지역경제의 성장을 노동시장의 측면, 즉 노동력의 동원이라는 면에서 고려하고 또한 제도주의적 시각에서 노동시장을 통해 본 지역 불균등성장이 어떻게 중국의 사회경제적 구조변동과 관련되어 이해되어야 하는지를 연구하고자 한다. 이 연구의 기본적인 인식은 노동시장은 한 지역의 경제구조 변동과정의 핵심적인 한 부분이며 이를 통한 지역격차에 대한 연구는 이행기 경제의 사회경제적 변동에 맥락 지워져야 한다는 점이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부분으로 구성된다. 우선 제 2 장에서는 현재까지 중국의 지

역격차에 대한 연구를 간략히 개관하고 그에 대한 평가와 함께 새로운 접근방식을 모색한다. 제 3 장은 노동시장의 역동성에 기초한 지역불균등 발전연구의 사례로 경제개혁이후 중국의 노동시장 성장패턴과 그 결정요인에 대한 분석을 행한다. 제 4 장에서는 사례분석의 결과를 토대로 지역의 발전과정과 관련된 생산, 생산성 및 고용변화에 대한 관계를 논의하며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시사점과 한계로 결론을 맺는다.

## 2. 중국의 경제개혁과 지역격차연구

### 1) 경제개혁이후 지역격차연구

경제개혁이후 중국의 지역격차에 대한 연구는 기본적으로 경제개혁 전후의 공간발전에 대한 다음의 일반적인 관점에 기초하고 있다. 경제개혁이전 ‘균형개발’이라는 명목 하에 투자의 집중으로 인한 내륙지역의 개발은 혁명이전에 형성된 전통적인 해안-내륙지역의 격차를 완화시키게 되었다. 그러나 경제개혁이후 불균등 발전전략에 따른 해안지역위주의 개발정책은 다시금 해안-내륙지역간 격차를 더욱 확대하게 되었다. 경제개혁이후 중국의 지역격차에 대한 이러한 일반적인 인식은 경제개혁을 균형개발을 지향하는 사회주의적 공간정책으로부터의 결별이라는 점에 주목하면서 그 주장을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일반적 주장에 대해서 회의적인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Wu, 1987; Zhao, 1996). Wu는 특히 중국의 사회주의적 공간정책이 일반적으로 여겨지듯이 지역간의 격차를 해소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격차를 창출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중화학공업위주의 사회주의 발전전략에 의해 도시-농촌간의 격차가 심각하게 되었고 비록 내륙지역에 대한 투자가 강조되어 전통적인 해안-내륙간의 격차완화가

확인되기도 하지만 여전히 그 격차는 항상 뚜렷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Zhao도 또한 성별·지역별 경제 및 투자자료분석을 통해 모택동식의 공간정책이 오히려 경제개혁이후 동부해안지역중심의 불균등 발전정책에 비해 지역격차를 완화시키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제기하고 있다. 즉 경제개혁기간의 공간정책은 경제성장지표를 기준으로 볼 때 개혁전 중간집단에 소속되었던 성들, 특히 동남해안지역의 급성장을 결과하였고 그에 따라 전체적인 지역 불균등발전이 오히려 낮아졌다고 밝히고 있다.

지역격차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경제개혁의 진행과정 속에서 나타난 사회경제적 문제들중 특히 개방형 사회주의체제의 안정성에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 개인간 및 지역간 격차의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면서 시작되었다. 특히 그 심각성이 널리 공유되면서 제9차 경제개발계획(1996년-2000년)에는 지역간 격차의 해소가 가장 중요한 지역정책과제로도 등장하게 되었다. 경제개혁이후 중국의 공간정책은 지역간 비교우위에 기초한 불균등 발전전략을 채택하여 해안지역을 성장거점으로 삼아 선도지역의 성장효과가 주변지역으로 파급되어 전지역이 경제성장의 혜택을 받게 된다는 역-U형 성장이론에 그 이론적 기초를 두고 있다. 이에 따라 과거와는 달리 한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빨리 성장하고 그에 따른 격차의 증대를 사회주의 정부는 용인하게 되었다.

경제개혁이후 중국의 지역격차에 대한 수많은 연구들 중에서 우선 Lakshmann and Hua(1987)와 Yang(1990)이 주목된다. 이 두 연구는 모두 경제개혁이 전체적으로 보아 자원 및 생산력의 배분을 해안지역에 유리하게 함에 따라 경제개혁이후 지역간 격차가 강화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Yang은 경제개혁이후의 중국의 발전전략을 “불균등 발전전략”으로 특정

시우면서 공간발전의 패턴변화를 사회주의체제의 근본적인 발전전략의 변화에서 그 원인을 규명하고 있다. 비교우위에 기초한 불균등 발전전략은 아울러 정치경제의 의사결정과정의 분산화와 맞물리면서 중앙정부의 재분배적 역량이 감소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해안내륙지역간의 격차는 더욱 심화하게 되었다고 보았다. 그러나 Denny(1991)는 중국경제에 대한 미의회 연구보고서를 통해서 경제개혁이 실제로 지역격차를 해소하여 왔다는 사실을 주장함으로써 학계의 주목을 받게 되었다. 그는 경제적 성과를 일인당 순생산량을 통해 살펴봄으로써 경제개혁의 공간적 불균등발전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경제적 격차가 줄어들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경제적 성과 면에서 나타난 이러한 지역적 수렴현상은 예상과 달리 외국투자가 특히 해외 자본 투자기관에 의해 공간상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또한 중앙정부도 여전히 재분배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가능하게 되었다고 보았다. Duncan and Tian(1999)은 일인당 국가수입과 일인당 GDP를 기준으로 조사한 결과, 경제개혁의 개방적 성장과 탈국유화 지향적 산업발전전략의 결과로 인하여 생산의 성간 격차는 줄어든 반면 생활수준 면에서는 국가의 재분배역할이 감소함에 따라 격차가 오히려 증대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생산 면에서 지역간의 격차는 역-U형 패턴을 나타냄을 기술하면서 그 원인으로는 산업화전략의 근본적인 접근방식의 차이에서 찾고 있다. 즉 내향적 산업화가 동북 3성과 북경, 천진 및 상해를 포함한 기존의 전통적인 산업지대의 우위를 강화하여 지역격차의 확대를 야기한 반면 경제개혁이후 외향적인 산업화는 중소외지역이었던 동남해안지역의 성들을 경제성장의 축으로 등장하게 하고 그에 따라 전통적인 산업지대의 비교우위가 상실되면서 전체적으로 지역격차의 감소효과를 갖게 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이상과 같이 다양한 부문에서 경제개혁이후 중국의 지역격차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며 그 주장하는 바로 서로 다른 모습을 띠고 있다. 그러나 이 모든 연구가 갖는 일반적인 이슈는 다음의 세 가지 측면에서 정리될 수 있다고 본다(Wei, 1999). 첫째, 지역격차연구에서 연구단위의 선정이 연구결과를 결정할 정도로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지역간, 성간 및 성내 지역격차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며 각각의 연구단위에 따라 지역격차의 모습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둘째, 지역격차의 정도를 측정하는 수단에 따라서 연구결과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절대적인 수치와 상대적인 수치의 변화를 측정하는 것이 각각 다른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끝으로 지역격차의 정도를 측정하는 기준지표를 선정함에 있어 소득, 생산량 혹은 사회적 서비스의 정도를 측정함에 따라서 격차의 모습도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게 위해 1990년대에는 복수의 연구단위와 복수의 격차결정과정을 연구하는 움직임이 있어 왔다. 그러한 연구의 노력덕분에 중국내 지역격차에 대한 이해는 높아졌다고 볼 수 있으나 여전히 지역격차를 발생시키는 요인과 과정에 대한 설명은 아직도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본다. 본 연구는 단순하지 않은 지역격차의 패턴에 주목하고서 현재 높이 요구되고 있는 복수의 연구단위와 격차결정과정을 고려한 보다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고찰의 유용성을 인정하지만 이러한 접근도 또한 현실적인 연구수행과정에서 그 한계점도 있다고 본다. 다양한 지역단위와 변수의 고려는 지역격차에 대한 파편화된 이해를 도울 수도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격차결정과정에 대한 이해를 희석시킬 위험도 있다고 본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지역격차의 연구에 원용될 수 있는 경제지리학의 불균등발전이론, 발전경제학의 노동시장이론 및 이행기 체제의 변화를 이해하는 제도주의적 접근을 기초로 하여 새로

운 접근을 시도하고자 한다. 이에 대한 이론적 논의는 다음에서 정리하고자 한다.

## 2) 이행기 경제의 변동과 불균등발전 : 노동시장적 접근

앞에서 논의한 경제개혁이후 중국의 불균등발전은 우선 이행기 경제의 변화에 따른 필연적인 지리적 과정의 결과로 이해되어야 한다. 이는 지역격차가 국가사회주의체제에서 시장경제로의 이행과정이 공간적으로 차별적이라는 사실에 기초한다라는 점을 의미한다. 이러한 이행과정이 갖는 고유한 측면인 공간적 차별성은 최근 지리학자들에 의해 폭넓게 지적되어 왔다(Pickles and Smith, 1997; Smith, 1997). 특히 신자유주의와 시장지상주의에 기초한 이행과정에 대한 비공간적 개념화가 갖는 오류와 위험성을 지적하는 논의로서 지리학적 연구의 중요성을 이 연구들은 지적하고 있다. 본 연구는 시장경제로의 이행이 갖는 공간적 변화의 차별성에 대한 지적과 그에 대한 설명이 사회경제체제의 근본적인 변동과정에 대한 이해에 기초해야 한다는 점에 중점을 둔다. 즉 지역격차의 패턴에 대한 단순한 기술과 제반 사회경제적 요인과의 상관관계에 의한 설명을 초월하여 지역격차과정에 대한 해석을 위해 이행기 사회경제의 제도적 변화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이는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체제운용 및 발전전략과 그를 위한 사회경제적 기본제도에 대한 이해가 연구의 출발점이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특히 이 점에서 본 연구는 경제개혁을 시장화(marketization)<sup>2)</sup> 과정으로 설정하며 국가사회주의체제의 소유권구조 변화과정과 그것이 미치는 결과에 초점을 둔다.

사회주의체제 운영의 근간을 이루는 것은 중앙집권

적 계획체제를 포함한 운영시스템과 그와 깊이 관련된 국가소유를 기본으로 삼는 소유권제도이다. 특히 소유권구조는 재분배경제에서 국가에 의한 배타적인 자원 배분의 역할을 보장하는 기본 수단이자 경제체제운영의 기본틀을 제공한다. 중국의 경제개혁이 비록 전면적인 소유권 구조의 개혁으로부터 출발하지 않았지만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비효율성을 극복하고 나아가 사회경제적 제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유권구조의 개선이 필수 불가결한 것이었다. 따라서 점진적인 개혁에 의해 결과된 국유와 비국유 부문의 공존에 의한 이원적인 구조는 경제개혁이후 중국사회경제체제의 특이성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 그에 따라 경제개혁의 성과에 대한 이해를 위해 많은 연구들이 새로이 등장한 비국유부문, 특히 향진기업과 외국자본의 투자에 의한 기타 소유기업의 역할에 지속적인 관심을 보여 왔다. 그러나 중국에서 소유권구조의 변화는 단순히 국유부문의 쇠퇴와 비국유부문의 성장이라는 이분법적 범주화를 초월하는 복잡한 과정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한 이분법적인 사고는 실제로 발생하는 소유권 구조변화의 역동성과 변화하는 소유권 구조의 다원화 및 지속성을 이해하는데 부족하다. 이를 위해서 본 논문은 최근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재산권(property rights) 구조에 대한 논의에서 출발하고자 한다. 소유권구조는 사실상 복수의 권리들이 하나로 묶여져 구성된 것이다(Putterman, 1995). 소유권은 한 자산에 대한 이용권과 그 이용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한 배타적 권리 및 다른 사람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는 권리들이 합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이러한 재산권개념은 경제개혁을 동기(incentives)와 제약(constraints) 구조의 변화로 이해하는데 중요한 이론적 근거를 제시한다. 뿐만 아니라 경제개혁의 시장화 전략이 새로운 재산권 형태의 창출만이 아니라 기존 소유권구조의 부분적인 분산화, 즉

소유 이전권은 국가의 손에 남겨두고서 나머지 권리들은 지방정부나 기업의 손에 넘겨지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게 된다. 따라서 현재 중국의 경제체제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소유권 형태는 바로 재산권의 변화 및 분산과정에 기초하여 이해되어야 하며 그 각각에 속한 기업들에 의해 행해지는 생산과정과 소비과정에 대한 의사결정도 바로 재산권의 구성에 의해 결정되는 동기와 제약구조면에서 고찰되어야 한다.

경제지리학에서 노동부문에 대한 연구의 관심은 기존의 대부분의 연구들이 생산에 초점을 두어 왔더라는 비판에서 비롯되었다(Storper and Walker, 1989; Peck, 1996). 노동에 대한 일차적인 관심은 입지요인 중 하나로서 노동이 다른 생산요소와는 구별되는 특성을 지녔다는 사실과 함께 급격히 진행되고 있는 세계화에 따라 자본의 입지능력이 높아지면서 노동의 상대적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는 점에 따른 것이다. 노동(시장)이 갖는 특성은 바로 그것이 인간의 육체에 체화되어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러한 사실을 무시하고 다른 생산요인과 같이 다루어 왔던 신고전 경제학과 입지이론에서는 노동이 갖는 중요성이 상실되어 버리게 되었다. 실제로 노동의 가격, 즉 임금은 공간적으로 차별화되어 있으며 더욱이 노동에 대해 임금과 함께 지불되는 안전과 건강, 직업의 안정성과 규칙성, 승진의 가능성 및 여타 복지혜택 등도 공간적으로 매우 다양하게 나타난다. 그리고 노동의 대기인 임금에 대해 적정수준의 노동기여 또한 자연적으로 보장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노동통제가 부여되어야 하며 노동력 자체도 끊임 없이 재생산되어야 한다. 물론 이러한 재생산과정은 바로 특정 장소의 맥락 속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장소성 또한 중요한 특성을 구성하게 된다.

입지요인으로서의 노동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함께 노동시장 특히 국지적 노동시장에 대한 연구 또한 진행

되어 왔다(Peck, 1996). Peck은 그의 기념비적 연구에서 노동시장에 대해 접근함에 있어 우선 노동시장이 가격체계에 의해서가 아니라 바로 사회적으로 제도에 의해 조절되며 또한 국지적으로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노동시장의 발달은 바로 제도적으로나 국지적으로 뿌리내림의 과정인 것이다. 경제지리에서 파생된 노동 및 노동시장의 대한 현재의 논의가 주목받게 되는 것은 바로 노동시장의 변동이 지역경제의 역동성과 깊이 관련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주장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자본주의 경제위기에 따른 유연적 생산체제로의 이행에서나 국가사회주의에서 시장경제로의 이행과 같은 지역경제의 변동은 반드시 노동과정 및 노동시장의 변동을 수반한다.

지역경제의 변동과 노동시장의 역동성간의 관계는 지역불균등 발전연구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즉, 지역 불균등 발전과정에서 최근 중요한 논의로 부각되는 것이 바로 노동시장의 역동성이다. 노동시장의 발전은 국가경제의 성장을 위한 주요한 발전전략으로서 발전경제학 연구에서는 오래 전부터 중요시 되어왔다. 지역경제성장에서 노동시장의 발전이 갖는 함의는 고용기회의 창출이라는 경제적 효과를 넘어 노동시장조절과 사회복지시스템이 갖는 지역경제성과에 대한 역할에까지 그 논의가 확대되어 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역경제성장을 노동시장의 발전과 관련하여 이해하고자 한다. 이는 기존 중국의 지역불균등발전에 대한 이해를 새로운 차원에서 접근하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이상의 논의를 토대로 본 연구는 경제개혁이후 중국내 불균등발전에 대해 다음과 같은 개념적 접근을 모색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기존 생산지표대신에 노동력의 동원측면에서 불균등발전을 검토한다. 지역경제의 성장은 지역내 생산기반의 확대와 함께 고용의

창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이러한 측면에서 지역성장을 논의하는 것이 우선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물론 이는 생산지표에 의한 논의에 대한 대안이라기보다는 그러한 논의를 확대 발전시킬 수 있다는 점이 오히려 강조되어야 한다고 본다. 둘째, 노동시장의 발전에 기초한 불균등발전 논의는 또한 단순히 노동력의 공간적 분포를 비교함을 넘어 그러한 공간적 분포를 결정하는 중요한 사회경제적 변동과정과 접목시켜야 한다고 본다. 이 점에서 본 연구는 이행기에 있는 중국의 경우 바로 소유권의 변동인 시장화 과정이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즉 노동력동원의 지리는 새로운 재산권의 창출이자 기존 재산권의 분산화과정인 시장화 과정이 각 기업의 노동시장 결정과정에 미친 결과로 이해되어야 한다. 따라서 다음 장에서 본 연구는 중국의 지역격차를 지역경제 변동의 주요한 측면인 노동력 동원의 공간적 패턴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경제개혁이후 사회경제적 제도변화의 중심축인 소유권구조의 변동을 기초로 하여 노동력 동원의 지리학, 즉 노동시장의 공간적 발달에 미치는 시장화의 역할을 중심으로 고찰한다.

### 3. 노동시장의 발전과 노동력 동원의 지역성 : 지역격차 이해에 대한 함의

#### 1) 중국의 경제개혁과 노동시장의 역동성

중국의 노동시장은 크게 도시와 농촌노동시장으로 구별되며 그 각각은 또다시 다양한 소유구조별 구성요소를 갖고 있다.<sup>3)</sup> 1998년 현재 총노동자수는 6억 9천 9백만 명이며 1차 산업이 50%에 약간 못 미치며, 2차 산업은 23.5%, 3차 산업은 26.7%를 차지하고 있다. 1978년 이후 노동자수도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1998

년까지 노동시장의 규모는 연평균 2.8%씩 증가하여 1978년에 비해 74%정도 증가하였다(표 1). 또한 전체적으로 도시노동시장은 농촌노동시장에 비해 빠르게 성장해 온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노동시장의 확대는 소유권 구조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1978년 이후 20년간 국영기업 종사자는 매년 1퍼센트씩 증가한 반면 같은 도시 노동시장내 사영 및 기타소유기업체 종사자수는 30%이상 매년 증가해 왔다. 결과적으로 1998년 현재 국유기업체 종사자는 총 취업인구중 약 13%로 1990년대 국영기업의 개혁이 본격화된 이후 계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으며 집체기업은 21%이며 나머지는 사영기업과 다양한 소유구조를 가진 기업내 종사자들이 차지하고 있다.<sup>4)</sup> 이러한 노동시장의 시장화는 우선 양적인 면에서 보다 많은 노동자원의 할당이 점차 시장원리에 의해 이루어짐을 보여 주지만 더 나아가서는 그것이 갖는 사회적, 정치적 및 지리적 결과는 이행기 중국사회의 변동형태를 구성하는 주요한 부분이 되고 있다.

위와 같이 소유권별로 살펴 본 노동시장의 양적 팽창은 또한 뚜렷한 지역성을 갖는다. 지역별 분포의 정

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각 소유권 형태별로 입지계수를 계산한 결과, 먼저 국영기업 노동자의 지역별 분포가 가장 균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당연히 사회주의적 평등원칙의 추진과 경제 및 고용부문에 있어 공적소유의 역할을 강조하였던 정책의 결과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여 진다. 이와 반대로 비국유기업, 특히 향진기업과 사영기업의 경우에는 노동자 분포의 공간적 차별성이 가장 크게 나타난다. 이 소유기업의 노동자가 집중된 지역은 바로 경제개혁 기간동안 성장 축이 된 해안지역의 성들이다. 도시집체기업의 경우는 중간 정도의 공간적 분포를 나타낸다. 그러나 경제개혁 기간동안 입지계수의 변화를 보면 비국유부문에 속한 노동자의 입지계수의 지역차이는 점차 줄어들고 있으며 국유기업의 입지계수는 지역적으로 점차 불평등해지고 있다. 이는 시장화에 의한 비국유부문의 성장이 점차 지역적으로 보편화되어 가는 반면 국유기업의 개혁은 지역적으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본다. 이에 대한 이해는 바로 국유기업에 대한 개혁이 갖는 정치적 의미에서 찾아질 수 있다. 사회주의 계획경제하에서 추진된 공업화위주의 전략은 공업부문의 국유화를 토대로 진

표 1. 중국 노동시장의 변화

(단위 : 천명)

연도		1978	1990	1998	성장률('78-'98)
도시노동시장	소계	95,140	166,160	206,780	4.0%
그중	국유기업	74,510	103,460	90,580	1.0%
	도시집체기업	20,480	35,490	19,630	-0.2%
	사영·개인기업	150	6,710	32,320	30.8%
	기타 소유기업	-	1,620	16,170	33.3%
농촌노동시장	소계	306,380	472,930	492,790	2.4%
그중	향진기업	28,270	92,650	125,370	7.7%
	사영·개인기업	-	16,040	45,920	14.1%
총계		401,520	639,090	699,570	2.8%

비고 : 성장률은 연평균 성장률로 계산됨. 자료의 제약에 의해 성장률중 도시 기타소유기업과 농촌 사영·개인기업은 1990~1998년동안의 성장률임.

출처 : 국가통계국, 1999, 중국통계연보

행되었으며 이는 점차 사회적 및 경제적 제도화과정을 겪게 되었다. 지역적으로 국가소유의 공업기업은 전통적인 공업중심지대를 중심으로 불균등하게 발전하였고 경제개혁이후 국유기업의 개혁정도는 기존 국유기업의 집적정도나 자원 및 정치적 역학관계 등에 의해 지역적으로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다음에서는 지역적 차 논의와 관련하여 노동시장의 발전에 대해 지역적 차원에서 보다 상세히 검토한다.

## 2) 지역경제성과와 노동시장발전 : 고용성장

경제개혁이후 노동시장의 확대, 즉 고용성장은 지역적으로 다양하게 나타난다(그림 1). 여기서는 자료의 한계와 산업부문별로 소유권구조가 편중되어 본 연구의 관심인 시장화의 효과, 즉 소유권구조 효과와 산업구조의 영향을 구별하기가 힘들다는 점을 고려하여 경제개혁이후 공업부문에 국한하여 분석을 하였다. 경제개혁이전 사회주의 발전전략으로서 공업화위주의 정책을 펼쳐 왔고, 경제개혁 이후에 공업부문은 지역경제발전의 가장 중요한 축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리고 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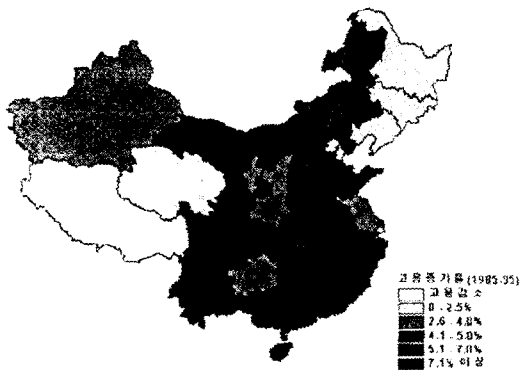


그림 1. 중국 공업노동시장의 성장(1985-1995년)

전히 중국내 국내총생산의 절대적인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1990년대 이후 급격한 국유기업의 개혁정책으로 인하여 국유기업의 종사자수가 1995년 이후 급격한 감소를 보인다. 본 연구가 노동시장의 성장을 중심으로 지역간 격차의 문제를 고찰하기 때문에 소유권 구조의 차원에서 경제개혁이후 지속적인 노동시장의 추세를 보여준 1985년-1995년 기간동안을 중심으로 연구를 행하였다.

1985년-1995년의 10년 기간동안 공업인구의 성장은 연평균 5%의 성장을 나타내고 있다. 국유기업 종사자는 10년간 9%의 성장을 보인 반면 도시집체기업 종사자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다. 이는 도시집체기업의 특수성에 기인한 것으로서 이전 사회주의 경제체제하에서 국유기업의 부속부문으로 주된 역할을 수행하였는데 경제개혁이후 그러한 필요성이 감소하면서 점차 쇠퇴의 길을 걷게 된 것이다. 반면에 향진기업과 기타 소유기업의 성장은 괄목할 정도이다. 그러나 지역적으로 노동시장의 발달은 상당히 차별적임을 <표 2>를 통해서 알 수 있다. 전체 공업노동자 수의 성장은 주로 해안지역의 성들과 이들에 인접하여 경제개혁이 진행되면서 점차 그 성장의 대열에 참여하고 있는 성들에게서 확인되고 있다. 각 소유권형태별 성장률을 보면, 해안지역의 성장과 내륙지역의 성장이 서로 다른 소유권형태의 성장에 의해 구분됨이 확인된다. 다만 그러한 구분이 약한 점은 내륙지역의 성들이 기준 연도인 1985년에 향진기업과 기타 소유기업의 발달이 거의 전무하였기 때문에 성장률에서 과장된 측면이 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각 소유권별 고용성장의 절대적 수를 통해서 보면 고용성장의 지역분극화가 뚜렷함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으로는 해안지역과 내륙지역내에서는 각 성별로 소유권형태에 따른 고용성장의 경험이 차이가 남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경제



개혁이후 고용성장을 중심으로 한 노동시장의 역동성은 분명히 공간적 차원을 가지며 그러한 공간적 차별성에 대한 이해는 바로 노동시장의 발달과 그 공간구조가 갖는 중국내 지역 불균등발전에 대한 설명에 중

요한 함의를 지닌다.

본 연구는 각 성별의 고용성장에 대해 경제개혁의 시장화 전략, 즉 비국유부문의 확대가 갖는 역할에 관심을 둔다. 따라서 소유권구조의 변화가 노동시장의 확

표 2. 지역별 공업노동시장의 발달

(단위 : 천명)

성	1995					성장률(1985-1995)				
	합계	국유	집체	향진	기타	합계	국유	집체	향진	기타
합계	139,181	41,601	14,933	75,647	7,000	5.1%	0.9%	-1.3%	10.1%	34.2%
베이징	2,068	1,015	222	635	196	0.2%	-0.8%	-5.3%	1.8%	33.4%
톈진	2,316	867	339	864	246	2.3%	-1.3%	-2.3%	7.4%	34.2%
허베이	7,858	2,121	691	4,780	266	6.7%	1.2%	0.1%	12.0%	43.9%
산시	4,464	1,683	453	2,291	37	4.9%	1.4%	0.3%	10.1%	43.5%
네이멍구	2,265	1,061	318	809	77	4.7%	1.7%	-1.0%	16.2%	54.4%
랴오닝	7,574	3,131	1,565	2,458	420	1.9%	0.4%	-1.9%	7.2%	13.9%
지린	3,297	1,627	660	896	114	2.5%	1.7%	-2.3%	9.6%	49.8%
헤이룽장	4,920	2,810	907	1,017	186	2.4%	1.8%	-2.1%	9.0%	57.3%
상하이	3,714	1,422	374	1,399	519	0.3%	-3.7%	-4.8%	4.7%	33.0%
장수	11,772	2,367	1,501	7,347	557	3.6%	0.7%	-0.7%	5.3%	21.6%
저장	9,017	1,011	762	6,905	339	6.5%	-0.6%	-3.6%	10.2%	33.4%
안후이	5,657	1,473	623	3,421	140	7.2%	2.1%	0.5%	12.8%	46.9%
푸젠	4,242	615	228	2,786	613	7.6%	-1.9%	-5.4%	12.1%	49.5%
장시	4,382	1,346	339	2,637	60	7.4%	2.1%	-1.6%	15.1%	50.6%
산둥	12,854	2,856	1,127	8,313	558	7.5%	3.5%	0.9%	10.0%	57.3%
허난	7,726	2,472	674	4,309	271	6.4%	2.1%	0.0%	11.4%	63.4%
후베이	6,337	2,006	717	3,334	280	4.7%	1.3%	-2.0%	9.4%	57.4%
후난	5,870	1,736	529	3,505	100	5.4%	1.6%	-0.7%	9.4%	58.5%
광둥	11,107	1,444	933	7,360	1,370	9.7%	-1.5%	-1.1%	16.2%	41.0%
광시	2,060	863	175	923	99	4.4%	1.0%	-1.8%	10.3%	58.3%
쓰촨	9,618	2,936	869	5,424	389	5.8%	0.5%	-0.1%	11.7%	54.6%
귀조우	1,340	693	111	509	27	3.1%	0.7%	-2.9%	10.3%	39.0%
원난	2,035	714	187	1,101	33	4.7%	-0.2%	0.5%	11.3%	23.5%
티벳	19	10	4	1	4	-3.1%	-5.2%	0.0%	-12.9%	14.9%
산시	3,166	1,411	252	1,472	31	3.8%	1.4%	-1.4%	8.3%	26.3%
간수	1,867	867	163	814	23	4.9%	1.5%	3.5%	10.8%	36.8%
칭하이	282	185	38	57	2	0.3%	1.1%	-1.2%	-1.3%	7.2%
닝시아	365	220	49	78	18	3.4%	2.2%	2.6%	5.4%	33.5%
신장	989	639	123	202	25	3.4%	3.4%	0.4%	4.6%	28.7%

비고 : 성장률은 연평균 성장률로 계산됨. 음영된 성값은 가장 빠른 성장률을 보인 10개 성들임.

출처 : 중국국가통계국, 각년도, 중국통계연감, 북경: 중국통계출판사; 改革開放十七年的中國地區經濟 편찬위원회, 1996, 改革開放十七年的中國地區經濟, 북경: 중국통계출판사

대에 대해 갖는 역할을 평가하기 위하여 지역별 고용증가를 지역경제 전체의 성장효과와 각 부문의 성장효과를 구별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지역경제성장을 위해 고용증대를 고찰하는 그러한 전통적인 방법은 변이할당 분석(shift share analysis)이다. 이는 지역내 생산 혹은 고용의 순성장을 다음의 세 가지 효과로 구분이 가능하게 하는 기술적인 분석방법이다: 국가 전체의 생산 및 고용의 변화; 지역내 산업구조의 효과; 그리고 지역경제의 입지우위효과. 고용의 순변화를 고찰함에 있어 전통적인 변이할당분석은 또한 주어진 기간동안 고용정도에 미치는 생산량과 생산성의 합한 효과를 측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시장화의 역할을 살펴보기 위하여 각 성별 취업자의 소유권구조를 중심으로 고용변화의 지역적 패턴을 고찰한다. 1985년-1995년 기간동안 중국의 공업노동자에 대한 변이할당 분석의 종합적 결과가 <표 3>에 나타나 있고, 순변이에

표 3. 순변이효과 구성요소

(단위 : 천명)

소유권 형태	양의 변이	음의 변이	순변이
국유기업	0	-21,158	-21,158
도시집체기업	0	-13,114	-13,114
향진기업	28,244	-363	27,881
기타 소유기업	6,391	0	6,391

기여한 정도가 큰 성들의 분포가 <표 4>에 나타나 있다.<sup>5)</sup> <표 3>에 따르면, 향진기업과 기타 소유기업의 순변이가 크고 또한 양의 변이를 보이는 점에 비추어 노동시장에 있어 시장화의 영향은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는 반대로 국유기업과 도시집체기업의 전체 순변이는 음의 변이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아 경제개혁 10년간 전통적으로 공업부문의 지배적 역할을 수행하여 왔던 두 소유권 기업의 역할이 점차적으로 쇠퇴해 왔음을 알 수 있다.

<표 4>는 지역적으로 전체 순변이에 대해 각 성들의 기여정도를 고찰한 것으로 양의 순변이에 기여한 주요 성들은 광둥, 산둥, 저장, 허베이, 안후이 및 푸젠으로 나타나며 음의 순변이에 기여한 성들은 랴오닝, 상하이, 장수, 헤이룽장, 베이징, 지린 및 톈진으로 나타나고 있다. 각 성의 지역별 분포를 고려할 때, 경제개혁 이전 사회주의 발전전략에 따라 공업의 집중적인 투자에 의해 굳건한 공업기반을 갖추고서 공업생산의 중심축 역할을 수행하였던 동북 3성과 베이징, 톈진 및 상하이는 공업노동자의 상대적인 감소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난다. 반면에 공업노동자의 상대적 증가에 기여한 성들은 대부분 동남해안지역의 각 성들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노동시장의 상대적 성장을 기준으로 지역경제의 성장패턴은 실제적으로 생산량을 기초로 한 연구와 다소 유사한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생산의 증가와 노동시장의 성장이 상관관계를 맺고 있다는 일반적인 사실을 반증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이 본 연구의 대상인 중국에서 중요한 점은 바로 노동시장의 성장이 생산의 증대에 반응하는 만큼 시장체제의 확대를 또한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이다. 즉 노동력 동원이 계획경제하에서 보다 시장경제하에서 노동수요에 보다 탄력적으로 반응하기 때문에 시장경제의 영향이 높아질수록 두 요인간의 보다 깊은 관계가 성립되는 것이다.

한편으로 전체 순변이에 기여하는 성들에 있어 소유권 형태별 고용구조의 변화가 다름을 알 수 있다. 즉 <표 3>에서 비국유부문이 양의 변이의 지배적인 부분을 차지한 것을 고려할 때 양의 순변이에 기여한 정도가 높은 성들의 경우에는 바로 이러한 비국유기업 종사자의 상대적인 증가가 높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 점을 보다 자세히 고찰하기 위하여 성별 순변이에 각각의 소유권형태가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조사하였다(표 5).

표 4. 주요 성별 순변이 기여도

(단위: 천명)

성	양의 순변이	%	성	음의 순변이	%
광둥	3,866	30.1	랴오닝	-2,711	21.1
산둥	2,558	20.1	상하이	-2,193	17.1
저장	1,100	8.6	장수	-1,887	14.7
허베이	1,099	8.5	헤이룽장	-1,492	11.6
안후이	1,027	8.0	베이징	-1,267	9.9
푸젠	892	6.9	지린	-933	7.3
허난	888	6.9	톈진	-731	5.7
합계	12,854	100.0	합계	-12,854	100.0

표 5. 각 성별 순변이에 대한 소유권별 기여

(단위: 천명)

성	순변이	국유		도시집체		향진		기타소유	
		고용 변화	지역변이 효과	고용 변화	지역변이 효과	고용 변화	지역변이 효과	고용 변화	지역변이 효과
광둥	3,866	-230	-382	-105	24	5,715	3,074	1,326	538
산둥	2,558	835	652	100	227	5,109	-35	552	444
저장	1,100	-62	-159	-336	-200	4,283	73	320	-20
허베이	1,099	241	71	10	94	3,240	767	259	134
안후이	1,027	278	170	29	103	2,399	758	137	83
푸젠	892	-127	-194	-168	-119	1,899	475	602	405
허난	888	455	272	2	85	2,844	492	269	233
톈진	-731	-117	-206	-91	-38	439	-243	233	0
지린	-933	246	121	-170	-67	538	-37	112	76
베이징	-1,267	-87	-187	-159	-112	102	-754	185	-12
헤이룽장	-1,492	466	254	-215	-76	588	-101	184	148
장수	-1,887	150	-51	-116	85	2,958	-4,089	478	-938
상하이	-2,193	-645	-832	-235	-159	515	-904	489	-49
랴오닝	-2,711	121	-152	-333	-98	1,229	-744	306	-1,737

〈표 5〉는 각 소유권 부문이 위의 주요 성들에 대해 그들의 순변이에 기여한 정도를 나타내고 있는데, 양의 순변이를 나타내는 광둥, 산둥, 저장, 허베이, 안후이 및 푸젠성의 경우, 향진기업과 기타 소유부문이 갖는 양의 순변이 역할이 크며, 음의 순변이를 나타내는 동북 3성들과 북경, 톈진, 상하이의 경우는 기타 소유부문을 제외한 국유와 집체기업의 상대적인 고용감소효

과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지역변이효과와 관련하여 보면, 음의 순변이를 보여준 대부분의 성들에서 거의 모든 경우에 전체 소유권형태에서 음의 순변이가 나타나고 있다. 이는 각 소유권 부문을 기준으로 할 때, 지역의 입지우위가 매우 약하게 나타남을 보여 준다. 반면에 양의 순변이를 나타내는 성들의 경우에는 많은 경우 향진기업과 기타 소유기업의 순변이효과가 기여한 바

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반면 산동성의 경우는 일반적인 경우와는 달리 국유기업의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 생산 및 고용의 성장과 관련하여 광동성과 함께 경제개혁의 중심축으로 여겨지며 아울러 향진기업의 포괄적인 발전으로 특징 지워지는 산동성이 고용의 상대적 증가를 나타내는 변이할당분석에서 국유기업의 지속적인 역할이 확인되는 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보다 자세한 연구의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sup>6)</sup> 특히 산동성과 광동성에 대한 비교연구는 시장화와 관련된 지역경제 발전전략의 수립시 계획과 시장체제의 적절한 배분을 위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본다. 전체적으로는 향진기업의 역할이 노동시장의 역동성을 기준으로 보아 지역불균등발전의 패턴을 결정해 왔다고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위의 변이할당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전체적으로 시장화전략에 의한 향진기업과 기타 소유권부문이 차지하는 총변이효과는 큰 양의 효과를 나타내는 반면 국영기업과 도시집체기업은 음의 효과를 나타낸다. 이는 시장화의 영향이 강하게 작용함을 보여준다. 둘째, 지역적으로 총변이효과에 대해 각 성들이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 보면, 음의 변이효과를 대표하는 지역은 경제개혁이전 사회주의 발전전략에 의해 초점을 받아온 전통적인 공업지대, 특히 북동지역과 북경, 상해로 나타나며 양의 변이효과에 기여한 성은 경제개혁이후 발전전략의 초점이 되어온 동남해안지역의 성들이다. 그러나 기존의 생산측면에 기초한 연구에서 보여준 해안지역 성들의 지배적인 구조는 뚜렷이 나타나지 않는게 특징적이다. 셋째, 위의 총변이효과와 지역적 패턴을 이해하기 위하여 각 소유권 부문이 각 성별 총변이효과에 기여한 정도를 살펴 보면, 양의 총변이효과를 나타내는 광동, 산동, 저장, 허베이, 안후이 및 푸젠성의 경우, 향진기업과 기타 소

유부문의 역할이 크며, 음의 총변이효과를 나타내는 동북 3성들과 베이징, 톈진, 상하이의 경우는 기타 소유 부문을 제외한 국유와 집체기업의 상대적인 고용감소 효과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전체적으로 향진기업이 지역불균등발전의 패턴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 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위의 전통적인 변이할당분석은 그 유용성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으로 고용의 변화에 대해 생산량의 변화와 생산성의 변화가 갖는 효과를 구분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 고용의 정도가 평균이상인 지역은 산업복합효과에 의해 결정될 수 있거나 지역변이효과에 의해 결정될 수 있는 것이다. 앞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노동시장의 확대가 생산의 증가에 대응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생산성의 변화 또한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즉 평균이상의 고용효과가 상대적인 입지여건이 취약한 장소에서도 발생할 가능성은 존재하고 있다. 생산의 증대가 실제로 긍정적인 고용효과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바로 노동생산성의 증가에 의한 고용감소효과를 초월해야 한다. 따라서 고용성장에 대한 생산량과 생산성의 효과를 구분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Rigby와 Anderson(1993)에 의해 개발된 변이할당모형을 적용하였다. 새로운 변이할당분석의 결과가 다음의 <표 6>과 <표 7>에 나타나 있다.<sup>7)</sup>

<표 6>에 의하면, 앞에서 살펴 본 국영기업과 도시 집체기업의 음의 총변이는 실제적으로 상대적인 생산량의 감소에 의한 고용감소효과가 생산성의 상대적 감소에 의한 고용증대효과보다 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음의 총변이로 나타난 것임을 알 수 있다. 반면에 향진기업과 기타 소유기업의 양의 총변이는 생산량의 증대에 따른 고용증대효과가 생산성의 증대에 의한 고용감소효과보다 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는 중국의 경제개혁이 갖는 고용효과에 대해 시사하

표 6. 생산량과 생산성 효과에 따른 순변이

(단위 : 천명)

소유권 형태		양의 순변이	음의 순변이	전체 순변이
전체기업	생산량효과	105,335	-106,289	-955
	생산성효과	96,785	-95,831	955
국유기업	생산량효과	0	-168,744	-168,744
	생산성효과	147,585	0	147,585
도시집체기업	생산량효과	3,300	-44,181	-40,881
	생산성효과	32,565	-4,798	27,767
향진기업	생산량효과	187,122	-3,503	183,618
	생산성효과	4,094	-159,831	-155,737
기타소유기업	생산량효과	24,835	-6	24,829
	생산성효과	98	-18,536	-18,437

표 7. 각 성별 순변이에 대한 각 소유권별 기여

(단위 : 천명)

성	총변이	국유기업		도시집체		향진기업		기타소유	
		생산량 효과	생산성 효과	생산량 효과	생산성 효과	생산량 효과	생산성 효과	생산량 효과	생산성 효과
광둥	3,866	-6,150	4,840	-823	49	12,662	-8,008	5,464	-4,167
산둥	2,558	-5,187	4,718	-47	-516	40,204	-37,163	3,329	-2,781
저장	1,100	-4,581	3,827	-1,736	691	22,070	-19,479	2,231	-1,923
허베이	1,099	-7,258	6,286	-1,402	972	5,123	-2,877	691	-437
안후이	1,027	-4,789	4,296	2,487	-2,841	11,480	-9,741	236	-100
푸젠	892	-3,275	2,670	-949	526	12,869	-11,543	758	-163
허난	888	-6,996	6,150	397	-829	6,615	-4,717	370	-102
톈진	-731	-6,493	5,741	-1,668	1,299	1,897	-1,732	1,420	-1,195
지린	-933	-6,266	5,621	-4,804	4,098	-673	980	76	35
베이징	-1,267	-6,090	5,291	-2,416	2,011	-1,929	1,687	620	-442
헤이룽장	-1,492	-11,094	10,047	-5,154	4,215	1,287	-976	199	-16
장수	-1,887	-9,377	8,096	-1,256	96	10,999	-10,873	3,965	-3,538
상하이	-2,193	-13,879	11,900	-3,362	2,734	1,195	-1,250	1,888	-1,418
랴오닝	-2,711	-16,156	14,335	-8,796	7,238	3,071	-2,635	1,378	-1,146

는 바가 크다. 생산과정상 경제적 효율성이 높은 부문 혹은 지역에서 생산의 증가에 따른 고용효과를 이루기 위해서는 생산량의 증대가 갖는 효과가 노동생산성의 증대가 갖는 효과를 초월해야 한다. 중국의 경우도 비 국유부문의 성장은 노동생산성의 향상과 병행되어 왔지만 결과적으로 생산의 지속적인 성장을 이룸으로써

고용성장의 효과를 거둘 수가 있었다. 그에 반해 전통적인 국유 및 도시집체기업은 상대적으로 낮은 생산량과 생산성의 증가를 기록하였고 결과적으로 음의 순변이를 보이게 된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본 연구의 서두에서 논한 바와 같이 지역경제의 불균등발전을 이해하는 한 접근으로서 노동력동원의 지리적 연구가 중요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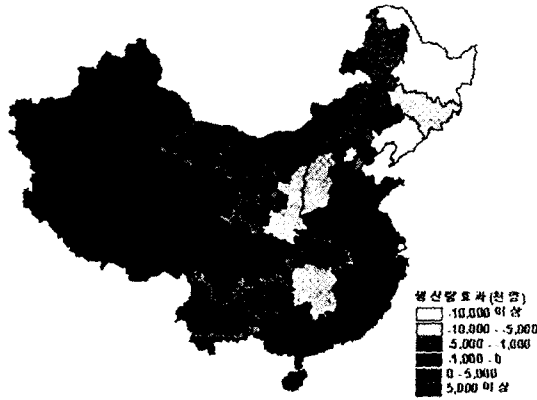


그림 2. 각 성별 생산량 순변이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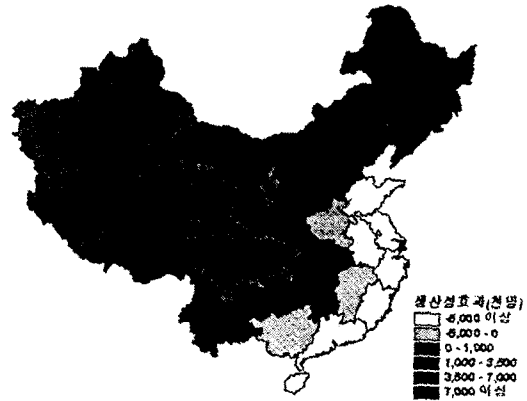


그림 3. 각 성별 생산성 순변이효과

되며 또한 특정 지역에서 노동력이 동원되는 과정에서 중요한 요인은 바로 (노동)생산성의 문제라는 점을 시사한다. 지금까지의 경제지리학적 연구에서 밝혀진 바이지만 생산성의 지리적 패턴은 단순히 자본의 투자를 비롯한 경제적 과정이 아니라 자본의 소유구조, 노동시장의 동원과 관련된 가정적 및 사회적 분업양식, 직업윤리 등의 사회적 제도 등 제도적 과정에 또한 깊은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위에서 고찰한 고용성장의 지리적 패턴에 대한 설명과 이해는 경제개혁이라는 제도적 변화와 관련시킨 연구를 높이 요구하고 있다고 본다.

각 성별로 고용성장에 대한 생산량과 생산성 변화의 역할을 고찰한 결과가 <그림 2>와 <그림 3>에 나타나 있다. 경제개혁이후 빠른 성장을 보인 해안지역의 성들은 모두 생산량의 증대에 따른 고용증대효과와 생산성의 향상에 따른 고용감소효과를 보이고 있으며, 전통적인 공업지대였던 성들은 그 반대의 경향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동남해안지역을 중심으로 한 경제개혁이후 중국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해온 지역의 고용성장은 국가경제의 성장효과와 함께 생산성의 상대적인

증가에 따른 고용증대효과에 의해 주도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와는 반대로 개혁전 전통적인 공업중심인 동북 3성과 3개의 특별시, 그리고 내륙지역의 성들의 고용성장은 주로 국가경제의 성장효과에 의해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러한 일반적인 경향에 대해 예외적인 경우도 나타나는데 장수성의 경우 생산성의 상대적인 증가에 의한 고용감소효과가 크게 나타나 결국 성내 고용의 성장은 국가경제성장효과에 의해 설명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생산량과 생산성의 변화에 따른 각 성들 순변이에 대해 다른 소유권형태의 기업은 차별화된 영향을 나타내고 있다. 국가경제내 전체 양과 음의 순변이에 기여한 주요 성들의 순변이에 대한 각 소유권 형태별 기여정도를 나타내면 다음 <표 7>와 같다. 양의 순변이에 기여한 해안지역의 성들의 경우에는 대부분 국유 및 도시집체기업의 생산량의 상대적 감소에 따른 고용감소효과가 생산성의 상대적 감소에 의한 고용증대효과보다 더 크게 나타나서 음의 순변이 기여를 한 반면, 향진기업과 기타소유기업의 경우에는 생산량의 증대에 따른 고용증대효과가 생산성의 증대에 따른 고용감소효과보다 더 크서 양의 순변이 기여를 나타내게 되었

다. 결국 후자의 양의 순변이 기여가 전자의 음의 순변이 기여보다 크기 때문에 이들 지역의 성들의 순고용증가에 기여하게 된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음의 순변이 나타낸 전통적인 공업지대인 동북 3성과 3개 특별시의 경우 앞에서 살펴 본 국유 및 도시집체기업에 의한 음의 순변이 기여가 다른 소유권에 의한 양의 순변이 보다 크거나 혹은 향진 및 기타 소유권기업의 생산성 증대에 따른 고용감소효과에 의해 결과적으로 음의 순변이 기여를 함으로써 이들 지역의 고용성장이 단지 국가경제의 성장효과에 의해 주도하게 된 것으로 나타난다.

이상 노동시장의 역동성에 기초한 분석이 경제개혁 이후 중국의 지역경제성장패턴에 대해 시사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고용의 변화를 고려한 노동시장의 역동성을 기준으로 볼 때, 지역성장패턴은 경제개혁 이전 개발전략의 초점이 되지 않았던 동남해안지역의 성들이 빠른 고용증대의 효과를 누리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새로운 지역발전의 분극화현상을 주도하게 되었다. 특히 이는 해안-내륙간의 전통적인 지역격차패턴이 이제 보다 다차원적인 변화를 갖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론은 또한 기존의 생산량과 투자자료에 기초한 지역격차연구와 유사한 모습을 나타낸다(Fan, 1995). 둘째, 경제개혁의 시장화 과정이 노동시장구조와 고용증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변화하는 소유권구조는 고용증대에 대해 차별화된 영향을 행사하였고 결국 특정 지역의 성장과 고용증대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특히 생산의 측면에서 고찰되는 바와 같이 비국유기업의 성장이 갖는 중요성도 아울러 본 연구에서 부각되었다. 셋째, 이 연구는 또한 Verdoon의 법칙, 즉 “확대되어 가는 경제에서 생산성의 증대가 더욱 빠르다”라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동남해안지역의 성들은 빠른 생산성의 증대에 따른 고용감소효과를 초월

하는 생산성의 증대에 따른 고용증대효과를 가짐으로써 경제개혁이후 더 빠른 고용성장과 노동시장의 확대를 향유하여 왔다. 그러나 본 연구는 지역의 전체 순변이 효과에 있어 생산성보다 생산량의 역할이 더 중요함도 보여주고 있다. 다시 말하면, 전체 순변이 효과의 정도는 결과적으로 생산량의 변화에 의해 결정됨을 보여준다. 이는 경제개혁이후 중국의 농촌지역에서 농업생산성의 급증과 함께 농업잉여노동력이 급속히 늘어났고 그에 따른 농촌지역내 실업문제와 도시로의 수많은 인구이동이 야기된 반면 많은 잉여노동력이 농촌지역내 향진기업으로 흡수되어 온 사실과 깊은 관련이 있다. 즉 빠른 생산성의 증대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낮은 노동생산력을 가진 향진기업의 급속한 생산확대는 그만큼 고용창출의 효과가 높아서 경제개발단계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구조적 실업문제를 완화시켜 왔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가능해 진다.

#### 4. 생산량, 생산성 및 고용변화

본 장에서는 지역격차에 대한 연구에서 생산의 측면과 노동시장의 측면을 고려한 연구를 기초로 이들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지역경제성장에서 생산의 변동과 노동시장의 역동성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 생산측면을 고찰하는 주요한 지표인 일인당 생산량은 결국 노동생산성과 고용율로 나눌 수 있다(Dunford, 1996). 이때 앞에서 기술한 바대로 생산의 공간적 불균등은 생산성과 노동시장 혹은 노동동원 잠재력의 지리와 깊은 관련이 있다. 결국 한 지역의 일인당 생산량은 노동생산성과 노동시장 참여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이다.

1985년-1995년 동안 공업부문의 고용성장과 노동생산성의 변화를 각 성별로 고찰하고 전국 평균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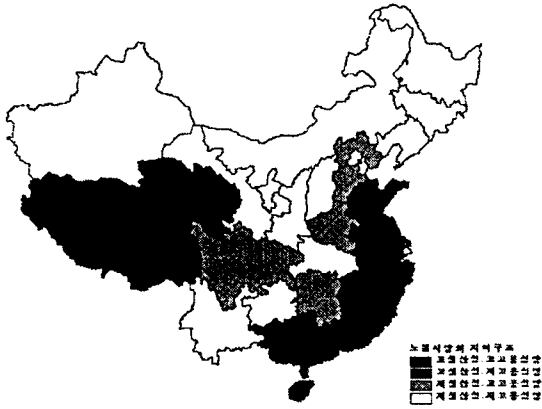


그림 4. 경제개혁이후 노동시장성장의 지역구조

으로 4개 지역으로 구분하였고 그 각각의 지역구분에 속한 성들이 <그림 4>에 나타나 있다.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우선 공업부문을 기준으로 노동시장의 지리가 생산의 공간경제패턴과 매우 유사하게 나타남을 명확히 알 수 있다. 즉 일인당 공업생산량의 가장 빠른 성장을 보이는 동남해안지역의 성들은 모두 전국평균 이상의 노동생산성과 고용증대를 나타내는 반면 지난 20년간의 경제개혁과정에서 발전전략상 우선 순위에서 멀어지게 된 기존의 공업중심지역 성들과 경제성장의 영향에서 지속적으로 소외되어 왔던 내륙지역의 성들은 반대의 지역구분에 소속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리고 경제개혁의 전반에는 경제성장의 중심축으로 등장하지는 못하였으나 경제개혁이 심화되면서 지역경제성장의 파급효과에 따라 최근에 들어 새로이 발전하고 있는 중간지대의 성들은 위의 두 지역구분상 중간집단에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결국 지역경제성장을 생산성과 고용증대라는 지표로 나누면 지역경제의 지위와 역동성은 생산잠재력의 발전과 함께 노동시장의 역동성 및 보다 광범위한 사회구조적 변동에 의해 규정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지금까지 시장화라는 경제개혁이 노동시장의 구조를 어떻게 변화시켜 왔으며 그것이 갖는 지역경제성장 및 불균등발전에 대한 함의가 무엇인지를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우선 고용성장을 기초로 변이할당분석을 통해서 양적인 접근을 시도하였다. 한편 이러한 노동시장의 발전과 그와 관련된 제도적 변화가 어떻게 지역경제성과 관련되어 있고 결국 불균등발전을 어떻게 규정하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성장의 지리를 이행기 경제의 제도적 맥락 속에 위치 지워져야 한다. 즉 중국내 새로운 형태의 불균등발전은 변동하는 경제의 조절메커니즘, 경제적 활동의 세계화와 시장화 그리고 지역내 경제 및 산업구조와 발전전략의 상호작용에 의한 복합적 영향으로부터 결과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연구는 반드시 중국의 경제변동의 뿌리내림을 고려하여야 한다. 생산측면에 기초한 지역격차연구에서 그 발생원인은 시장화의 정도와 해외투자 등의 변수로 설명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의 제도적 변수들이 노동시장의 발전을 구조화하고 또한 그것이 갖는 지역경제성장에 대한 함의를 규정한다고 사료된다.

첫째, 지역경제의 시장화 정도가 중요하다. 시장화는 일반적으로 국유기업에 대한 비국유기업의 성장정도에 의해 측정될 수 있으며 그러한 소유권구조의 변화는 고용의 성장뿐만 아니라 제공되는 고용의 질적인 문제와도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시장화의 지역정치경제학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둘째, 경제개발에 의한 노동시장의 문제는 바로 인구가동문제와 깊은 관련을 맺고 있다. 일반적으로 발전경제학에서 노동시장의 발전은 가장 중요한 자원중 하나인 노동의 공간적 배분의 문제로 이해되며 이 점에서 인구가동이 주요 연구주제로 여겨지고 있다. 특히 중국의 경우에는 아직도 인구가동이 시장의 원리에 전적으



로 의존하지 않고 있으며 호구제도 등의 제도적 제약으로 인하여 그 과정이 왜곡되어 왔다. 따라서 도시-농촌의 전통적 이원구조의 해체 혹은 강화와 관련된 인구이동의 문제도 노동시장의 발전과 관련되어 검토되어야 한다.

끝으로 해외자본의 역할과 지역경제의 개방성이 또한 중요하다. 해외자본은 지역적으로나 부문적으로 차별성을 띠고서 투자되어 왔기 때문에 그것이 갖는 노동시장발전에 대한 영향도 상당히 지리적으로 다양하다고 본다. 따라서 해외투자의 지역적 분포와 지역경제성장에 대한 역할을 규명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지역경제의 개방성은 단순히 지역경제내 해외부문의 양적 확대만을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역경제의 발전전략이 제도적으로 수립되는 과정과 한 지역경제가 갖는 국내 및 국제경제상의 위상에 대한 이해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즉 지역경제의 개방성은 바로 경제개혁을 통한 지역발전전략, 중앙-지방정부의 관계변화 및 해외자본의 세계화전략이 맞물리는 접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 5. 결론

본 연구는 경제개혁이후 중국의 지역경제성장의 불균등성에 대해 진행된 많은 연구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시장화 전략에 의한 노동시장성장의 지리적 패턴과 그것이 갖는 지역격차이해에 대한 함의를 검토하였다. 변이할당분석을 통해 나타난 고용성장의 지리학은 생산량에 기초한 공간경제패턴과 유사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시장화의 심화에 따라 노동시장의 성장이 노동수요의 변화에 대응하고 있다는 점을 반증하는 것이다. 다만 노동시장을 기준으로 볼 때, 생산측면에 기초한 연구에서 보여지는 해안지역중심의 패턴은

뚜렷이 나타나지는 않고 있다. 또한 생산량과 생산성의 변화가 노동시장의 성장에 대해 갖는 효과를 관찰한 결과, 비국유기업의 생산량 및 생산성의 상대적 증가가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지역변이효과를 통해 지역경제내 고용증대효과를 동남해안지역의 성들을 중심으로 가져 왔으며 국유기업은 생산량과 생산성의 상대적인 감소로 인하여 고용감소효과를 가져 왔다. 결과적으로 노동시장의 성장은 생산의 증대와 함께 지역경제발전의 패턴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다만 생산의 공간경제와 구별되는 시간적·공간적 괴리는 노동이 한 생산요인으로서 갖는 특징, 즉 다른 생산요소보다도 훨씬 사회제도적 환경에 의존하고 있으며 그러기 때문에 더욱 장소의존적(place-bound)이라는 사실 때문으로 이해된다. 즉 노동시장의 성장에 기초한 지역불균등 발전에 대한 본 연구의 분석은 생산지표에 의한 지역격차패턴과 유사하게 나타나기도 하지만 각 소유권 형태별 노동시장의 발전과정은 재산권구조의 차이에 의해 서로 다르게 생산량과 생산성에 대응하면서 차별화된 모습을 보인다. 이는 다시 공간이라는 변수를 매개로 다시 차별화되어 결과적으로 경제개혁이후 중국의 공간경제를 규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대상인 중국내 노동시장의 발전은 생산기반의 확대와 소유권구조의 변화라는 사회경제적 제도변화와 맞물리면서 한 지역의 지역경제 발전경로를 규정하여 왔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는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양적인 접근에 치중한 결과 실제적으로 시장화가 노동시장성장의 지리적 패턴을 야기하는 과정에 대한 질적인 접근이 소홀하게 되었다. 이를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질적인 연구를 통해 보완되어야 한다고 사료된다. 아울러 지역격차의 중요한 차원이 도시-농촌간의 격차문제도 여기서는

고려되지 못한 점 또한 지적되어야 한다고 본다. 중국 내 도시-농촌간의 격차는 사회주의 발전전략의 공간적 표상이며 전체적인 공간격차에 상당히 기여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노동력의 양적·질적 성장의 측면에서 도시-농촌간의 격차문제에 대한 이해와 설명도 시급히 요구되는 주제로 사료된다.

註

- 1) 여기서 생산은 산업의 총생산량 및 그와 관련된 변수를 지칭하는 것이며 흔히 사회과학내 소비에 대비되어 논의되는 포괄적인 의미의 생산과는 다름을 밝혀 둔다.
- 2) 시장화는 일반적으로 광의의 의미인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의 이동"을 지칭하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는 전소비에트연방과 동부유럽경제의 경우에 대비하여, 사회주의 소유권구조의 근본적인 변동이 없이 시장시스템의 역할을 확대하려는 중국의 경제개혁 전략을 지칭한다. 이러한 시장화의 결과는 중국산업에서 소유권구조의 다양화로 나타난다. 제도주의적 시각에서 보면, 시장화는 단지 비국유기업의 성장을 지칭하는 소유권구조의 단순한 다양화를 넘어 경제운영의 기본체제가 변화되고 그에 따라 제반 기업의 의사결정과 전략수립에 변화를 초래하는 동기와 제한구조의 변화를 의미한다. 따라서 이러한 시각에 입각한 분석은 기업단위의 분석을 아울러 포함하여야 한다. 그러나 본 연구는 기업단위의 분석을 통해서 각기 다른 소유권형태의 기업들이 노동시장에서 서로 다른 조건하에서 전략과 의사결정을 수행한다는 기존 연구(Lee, 2000)를 토대로, 그것의 집합적인 결과로 나타난 중국내 노동시장의 변화를 고찰하고 그것이 지역격차이해에 대해 갖는 함의를 검토한다.
- 3) 도시노동자는 국영기업, 도시집체기업, 사영기업과 외국투자와 관련된 다양한 소유권구조하의 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로 구성되며 농촌노동자는 농업노동자, 향진기업 및 사영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로 구성된다.
- 4) 국영기업(state-owned enterprises, SOEs)은 근본적으로 국가소유의 기업을 의미하며 중앙정부 및 성정부의 관리하에 있다. 집체기업은 또한 도시집체기업(urban collective enterprises)과 농촌집체기업

(rural collective enterprises)으로 구분되며 도시 및 농촌지역내 주민의 자치단체에 의해 집합적으로 소유된 생산단위를 의미한다. 이때 농촌집체기업은 오히려 향진기업(township and village enterprises, TVEs)으로 더 일반적으로 지칭된다. 기타소유기업은 넓은 의미로 이외의 모든 소유권형태를 지닌 기업을 지칭하며 합작회사, 유한회사, 해외투자기업 등을 포함한다. 통계적으로는 좁은 의미로 사영기업과 개인기업은 기타소유기업에서 제외되어 별도의 범주로 분류된다.

- 5) 순변이는 실제의 고용성장정도와 국가성장효과에 의해 기대되는 고용성장정도간의 차이로 정의된다.
- 6) 다만 산동성의 개혁과정에 대한 정치적인 해석이 일단 주목된다. 산동성은 베이징과 가까이 위치한 이유에 의해 과거로부터 정책의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다가 갑작스러운 정책변화에 의해 불이익을 당한 경험이 커서 점차적으로 정책집행과정이 보수적인 접근으로 변화되고 있어지고 있다.
- 7) Rigby와 Anderson은 그들의 논문에서 고용증가에 대한 생산성 및 생산량 효과를 구분할 수 있는 보다 확장된 변이할당분석모형을 전개하였다. 여기서 그 모형을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begin{aligned}
 TS^r(g) &= TS^r(a) + TS^r(b) = \sum_i E^r [(a_i^r - a^r) + (b_i^r - b^r)] \\
 PS^r(g) &= PS^r(a) + PS^r(b) = \sum_i E^r [(a_i^r - a^r) + (b_i^r - b^r)] \\
 DS^r(g) &= DS^r(a) + DS^r(b) = \sum_i E^r [(a_i^r - a^r) + (b_i^r - b^r)]
 \end{aligned}$$

위에서 TS는 총변이효과, PS는 산업복합효과, DS는 지역변이효과이며  $a_i^r$ 는 생산성이 고정적일 때 생산량의 차이에 의한 r 지역내 i 산업의 고용변화율이며 반면에  $b_i^r$ 는 생산량이 고정적일 때 생산성의 차이에 의한 r 지역내 i 산업의 고용변화율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는 이 모형을 이용하여 중국내 각 성별 공업의 생산량과 고용자수를 토대로 일인당 노동생산량을 구한 뒤, 이를 적용하여 순고용증가에 대한 생산성과 생산량의 효과를 계산하였다.

## 참고문헌

- 중국국가통계국, 각년도, 중국통계연보, 북경: 중국통계출판사
- 改革開放十七年的中國地區經濟 편찬위원회, 1996, 改革開放十七年的中國地區經濟, 북경: 중국통계출판사
- Denny, D.L., 1991, "Regional economic differences during the decade of reform," in Joint Economic Committee, Congress of the United States (ed.), *China's Economic Dilemmas in the 1990s*, Washington, DC: US Government Publishing Office, pp. 186-208.
- Duncan, R. and Tian, X., 1999, "China's inter-provincial disparities: an explanation," *Communist and Post-communist Studies*, 32, pp. 211-224.
- Dunford, M., 1996, "Disparities in employment, productivity and output in EU," *Regional Studies*, 30(4), pp. 339-357.
- Fan, C., 1995, "Of belt and ladders: state policy and uneven regional development in post-Mao China," *Annals of the Association of American Geographers*, 85, pp. 421-449.
- , 1997, "Uneven development and beyond: regional development theory in post-Mao China," *International Journal of Urban and Regional Research*, 21(4), pp. 620-639.
- Fan, C. and Wei, Y.D., 2000, "Regional inequality in China: a case study of Jiangsu Province," *Professional Geographers*, 52(3), pp. 55-469.
- Lakshmann, T.R. and Hua, C., 1987, "Regional disparities in China," *International Regional Science Review*, 11, pp. 97-104.
- Peck, J., 1996, *Work-Place: The Social Regulation of Labor Market*, New York: Guilford
- Pickles, J. and Smith, A., 1998, *Theorising Transition: The Political Economy of Post-Communist Transformation*, Routledge, London
- Putterman, L., 1995, "The role of ownership and property rights in China's economic transition," *China Quarterly*, 144, pp. 1047-1064.
- Rigby, D. and Anderson, W.P., 1993, "Employment change, growth and productivity in Canadian manufacturing," *Canadian Journal of Regional Science*, 16(1), pp. 69-88.
- Smith, A., 1997, "Breaking the old and constructing the new? Geographies of uneven development in Central and Eastern Europe," in R. Lee and J. Wills (eds.), *Geographies of Economies*, New York: John Wiley & Sons, pp. 331-344.
- Storper, M. and Walker, R., 1989, *Capitalist Imperatives: Territory, Technology and Industrial Growth*, Oxford: Blackwell
- Wei, Y.D., 1999, "Regional inequality in China," *Progress in Human Geography*, 23(1), pp. 49-59.
- Wu, C-T., 1987, "Chinese socialism and uneven development," in Forbes and Thrift (eds), *The Socialist Third World*, Basil Blackwell, pp. 53-97.
- Yang, D., 1990, "Patterns of China's regional development strategy," *China Quarterly*, 122, pp. 230-257.
- Ying, L.G., 1999, "China's changing regional disparities during the reform period," *Economic Geography*, 75(1), pp. 59-70.
- Zhao, S., 1996, "Spatial disparities and economic development in China, 1953-92: a comparative study," *Development and Change*, 27, pp. 131-163.

## Abstract

### Labor Market Dynamics and 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Implications for Regional Inequality in Post-Reform China

Wonho Lee\*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spatial patterns of urban labor market growth driven by marketization process and its implication for understanding regional uneven development in post-reform China. Using a shift share analysis, it shows that the geography of employment growth in China's industrial labor market has closely interacted with the space economy of industrial output, which in turn indicates a deepening of economic reform. By decomposing net employment growth into output and productivity effects, it is shown that the non-state sector holds rapid growth of both output and productivity and contributes to net employment growth through positive net shifts. On the contrary, this study also presents that the state sector with relative decrease in output and productivity holds employment decline effects during the reform period. Since there is a significant spatial dimension for the trend above, it is contended that labor market dynamics together with space economy of industrial production play an important role in determining regional patterns of economic development. In addition, through situating this investigation in the context of structural and institutional changes in the reform period, our understanding of regional patterns of labor market growth will be much furthered.

**Key words :** China, labor market dynamics, marketization, uneven development, shift share analysis

---

\* Expert Advisor, The Council for Comprehensive Planning of National Land Development, Ministry of Construction and Transportation